



“승패 떠나 바둑 자체를 즐깁니다”

■ 도요타덴소배 결승 진출 이세돌 9단 인터뷰

신안군 비금면에서 태어난 이세돌(23) 9단이 2006년 하반기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힘찬 웃음을 머금고 있다.

이창호와 세계 바둑 지존을 다투는 이 9단은 최근 맥심커피 배,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우승한 데 이어 ‘숙작’ 이창호를 꺾고 도요타덴소배 결승에 진출,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출전을 앞두고 칼날을 버리고 있는 이 9단을 전화로 만났다.

여성과 통화하는 것 같은 차 각이 들 정도로 ‘미성(美聲)’을 가진 이 9단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호남바둑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진출한 도요타덴소배를 계기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요사이 성적이 좋지 않은 데다 또 질 경우 부진이 거듭되지 않을까 우려했는 데 상대가 중반 이후 집중력이 떨어져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진에서 벗어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4년과 2005년 거듭된 부진에 대한 주위의 ‘조급한’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이 9단은 그동안 적잖은 마음 고생을 한 듯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솔직히 2004년에는 좀 풀어졌다는 걸 인정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결혼 준비 등으로 경황이 없어 집중할 수 없었어요. 부진을 빛내 ‘한물 간 것 아니냐’는 등 너무 물어가기보다 따뜻한 주위의 위로가 아쉽기도 했어요”

지난 95년 입단한 뒤 12년 동안 이기고 지는 것이 ‘번사’였지만 두고 두고 빼아온 대국이 없을 리 없다. 그는 2001년 LG배가 평생

4강서 숙적 이창호 격파…슬럼프 탈출 청신호

때가 되면 후배 양성 고향팬에 보답하고 싶어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첫 판에 이창호 9단을 꺾었을 때 감이 너무 좋아서 우승을 예감했었는데, 두 번 이긴 후 내리 3판을 졌어요.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기세가 갑자기 꺾여버렸어요.”

평소 남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않는 그는 승부에만 집착하는 후배들이 때문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둑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후배들은 어린 나이에 너



무 승부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무

엇보다 바둑을 즐겼으면 합니다.”

지난 3일 첫 패를 얻은 후 가장으로서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그는 내년 1월 열리는 도요타덴소배는 물론 올해 GS칼텍스배, 춘란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이세돌 9단은 지난 1995년 12살 때 프로입문 후 2003년 9단으로 승단했으며, 2002~2003년 후지쓰배, 2004년 삼성화재배 우승 등 국내외 주요 기전에서 통산 15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운영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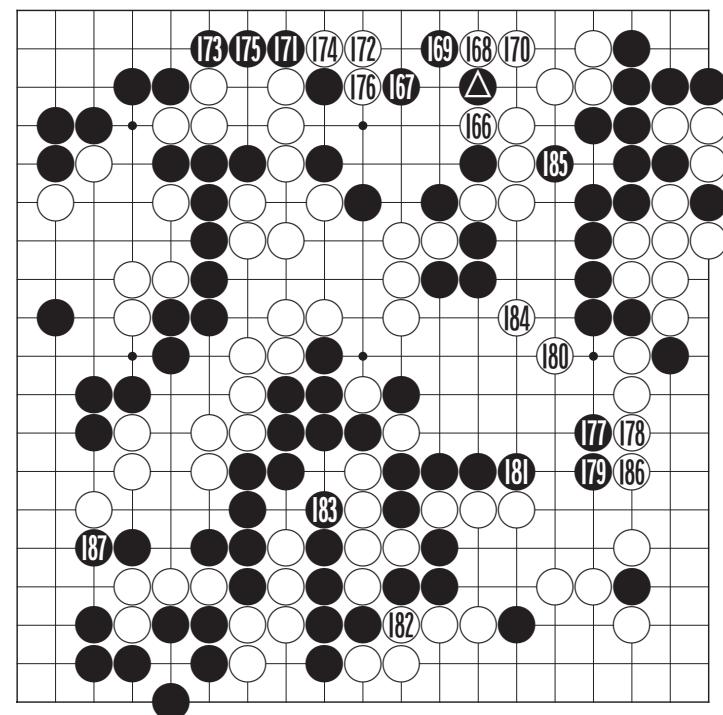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주제경기특대회

역전을 허용한 태협

제10보(166~187)

白 허 우석 5단
<광주광역시청A>

黑 이강민 5단
<PCA 생명>



흑 166은 형세가 역전되고 말았음을 감각적으로 느낀 이강민 5단의 날카로운 침입이다.

백 166은 정수. 이 수로 167이면 잡을 수는 있으나 흑이 166에 이으면 놓고 떠야하는 이점이 따른다. 168로 ‘참고도 1’에 두면 흑 8까지 백이 거꾸로 잡혀서 어쩔 수 없으며 171로 젖혀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

허우석 5단은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다급하게 172로 치중했는데 이강민 5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173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것으로 선수까지 잡아 애초에 흑▲로 쳐들어간 목표를 120% 달성했다. 형세에 결정적인 선수 10집 이상의 끝내기를 해낸 것이다. 완전히 형세역전이다.

172로는 ‘참고도 2’의 백 1로 막아 잡으려 가는 강수가 있었다. 흑 2에는 3, 5로 사는 수가 없었다. 이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협한 것은 초읽기가 유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역전시켜 놓고 쉽게 재역전 당한 아쉬운 순간이다. 이후에 끝내기를 거쳐 개가를 마치니 흑 5집반승, 이곳에서 승부가 갈린 것이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오규철 9단·본문 바둑해설위원〉

이 수로 167이면 잡을 수는 있으나

흑이 166에 이으면 놓고 떠야하는 이점이 따른다. 168로 ‘참고도 1’에

두면 흑 8까지 백이 거꾸로 잡혀서 어쩔 수 없으며 171로 젖혀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다.

허우석 5단은 초읽기에 몰린 나

머지 다급하게 172로 치중했는데

이강민 5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173

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것으로 선수까지 잡아 애초에 흑▲로 쳐들어간

목표를 120% 달성했다. 형세에 결

정적인 선수 10집 이상의 끝내기를

해낸 것이다. 완전히 형세역전이다.

172로는 ‘참고도 2’의 백 1로 막아 잡으려 가는 강수가 있었다. 흑 2에는 3, 5로 사는 수가 없었다. 이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협한 것은 초읽기가 유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역전시켜 놓고 쉽게 재역전 당한 아쉬운 순간이다. 이후에 끝내

기를 거쳐 개가를 마치니 흑 5집반

승, 이곳에서 승부가 갈린 것이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오규철 9단·본문 바둑해설위원〉

KT&G 생활의 중심 SK telecom 전남본부



광주 세종고 조경호군 프로 입단

“프로 입단 꿈을 이룬 만큼 일류 기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지역연구생 입단 대회에서 쟁쟁한 지역 대표 연구생 12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프로기사에 입문한 조경호(16·세종고 1년 휴학)군.

조군은 예선리그에서 자신을 꺾고 9승2패를 기록, 나란히 공동 1위에 오른 대전 출신 김진호군과의 부담스런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에

승자가 됐다.

각종 기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프로기사는 한국기원에서 1년 통틀어 9명을 뽑은 ‘바둑계의 고시’로 통한다. 조군은 8살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바둑을 배운 ‘토종영재’다.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낸 조군은 초등학교 내내 바둑 학원에서 기초를 닦은 뒤 광주 지역 최초 9단인 오규칠씨 문하에 들면서 프로의 자질을 갖췄다. 그는 지난해 광주 출신으로 지역 연구생 관문을

재능·근성 겸비한 대기만성형

‘이창호 넘는 기사 되고 싶어’

통과해 프로가 된 김수용(17)군에 이어 오규철 9단이 두 번째 배출한 광주 지역 연구생이다.

조군의 승신인 오규철 9단은 ‘조군은 태고난 재능에 근성까지 겸비한 대기만성형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평가했다.

바둑 실력을 물론 인품과 겸비한 이창호 9단을 가장 존경한다는 조군은 “바둑 특기생을 육성하는 서울 충암고등학교에 진학해 바둑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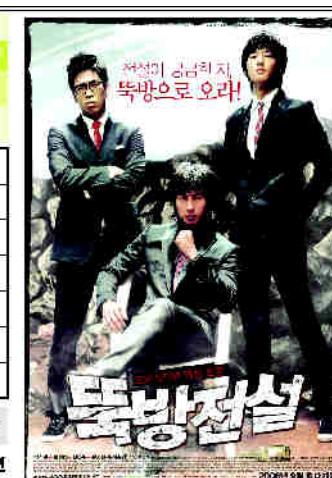
/운영기자 penfoot@

movies
영화를 즐기는 시간 보내세요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 런던의 국시거리 ♥ 예매 154-0800
1관 연예, 그림수수없는 미술관 (164/12개월) 최고급
2관 전자기 (124)/플레이트 (83/154)
3관 예의없는 것들 (114)/해변의 여인 (154)
4관 천히장사 마돈나 (154)
5관 센티넬 (154)
6관 괴물 (124)/원탁의 전사 (154)
7관
8관 일본침략 (124)
9관
10관
Megastar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루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고객은 원활 3시간 최초 10분 무료)
★필름이 무제한 공짜 (매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뚜팅전설 (184)
2관 예의없는 것들 (184)
3관 일본침략 (124)
4관 원탁의 전사 (154)
5관 괴물 (124)
6관 신데렐라 (154)
7관 아이스캐서 (전체)



한도시청 영화사랑 • 예매 www.joyco.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한남점** **수원점**
한남점 주연관(1층) 상수원점(2층) 마포점(3층)
1관 괴물 (124)
2관 레이디 하우스 (124)/전자남 (124)
3관 아이스캐서 (전체)/예의없는 것들 (184)
4관 일본침습 (124)
5관 천히장사 마돈나 (154)
6관 센티넬 (154)
7관 뚜팅전설 (184)
8관 원탁의 전사 (154)
9관 뚜팅전설 (184)/해변의 여인 (154)
10관 연예 그림수수없는 미술관 (184)
*호남 최대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전화 1588-7941
수원원점(2층) 출입 10층
(1층 or 2층) 0번



건물 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광주시 동구 대이동 39-1(동부사거리)

대지

◎136평 건평 59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도가 협의 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1-1140, 5210 101-102-2322
(광주서원 신분증, 대인동 소방서면허증)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 손님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물을 사실상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관리자역할 암호: 전. 답 구함
※광주군 흘동호수도입을 모릅니다.

일기공인중개사

■ (02) 234-0216, 1011-809-0896
(광주우체국부지)

LCT타워(주)

■ (02) 972-8004, 1010-7154-8998

**첨단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유명매거너 운집**

**(금)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청**

[각층분할 가능]

**병·의원 임대
3층: 88평, 212평 인과, 피부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학원 및 사무실 임대
4층: 88평, 140평 각종 학원, 시무실 등**

**스카이 라운지
5층: 222평 스카이라운지, 휴밀리티스토랑**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참신한 공인중개사님 어여쁜 포인트 (02) 525-0021, 천정상담 011-812-3421

경매 투자 투자상담 환영!!